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한 과학문화 확산 노력 경주” GIST, ‘2025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에서 친환경 에너지 체험 부스 운영

- 차세대에너지연구소, 태양광 키트 체험 통해 지역민 위한 에너지 교육... 300여 명 참여 성황
- 일상과 연결되는 과학기술 교육의 장 열어 시민의 ‘에너지 리터러시’ 향상 앞장서



▲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가 ‘2025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에서 운영한 ‘친환경 에너지 체험’ 부스. 참가자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키트를 조립하고, 실제 태양광으로 작동시키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5월 17일(토)과 18일(일) 양일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2025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에 참가해 ‘친환경 에너지 체험’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와 국립광주과학관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과학문화협회가 주관했으며, 총 8개 마당에서 63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소장 이상한)는 ‘기초과학마당’ 부문에 참여해 태양광 에너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300여 명의 지역민이 참여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친환경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6행시 낭독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또한, 태양광 보트·자동차·풍차·강아지 로봇·비행기 등 다양한 태양광 키트를 직접 조립하고 구동하며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원리와 실생활 활용 가능성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차세대에너지연구소는 태양광, 배터리, 수소, 전력 시스템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연구 및 실용화에 매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과학 교육 연계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부스 운영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심 캠퍼스 리빙랩 사업과 연계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지역민의 에너지 리터러시(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봉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차세대에너지연구소는 부스의 사전 기획과 운영을 광주교육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했다.

2009년 '솔라에너지연구소'로 출범한 이래, 차세대에너지연구소는 유기 태양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촉매 기술 등 에너지 핵심 분야에서 연구를 선도해 왔다. 또한,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앨런 J. 히거(Alan J. Heeger) 교수, 게르하르트 에틀(Gerhard Ertl)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UC 샌타바버라 등 세계 유수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한 소장은 “이번 체험 부스는 과학기술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GIST는 에너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학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GIST는 국립광주과학관과 협력하여 ‘GIST 과학스쿨’ 등 다양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교육의 저변 확대 및 미래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